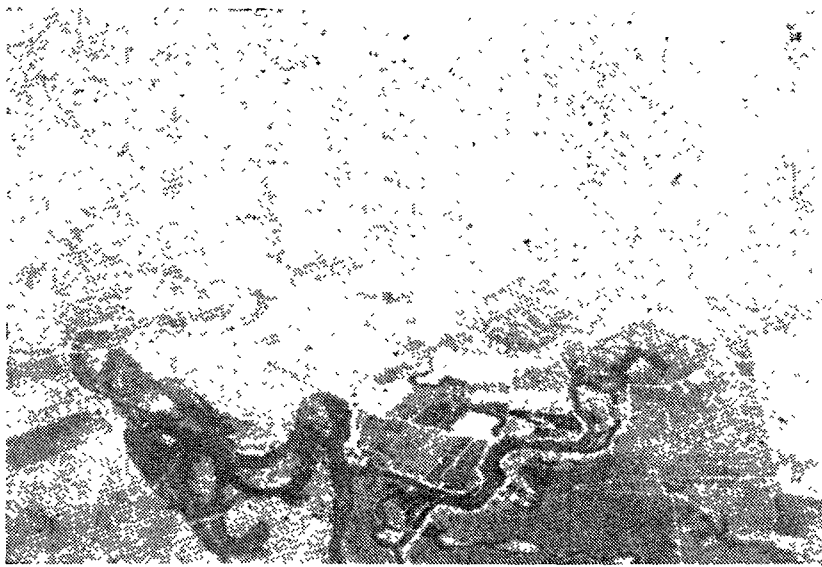


미 국 기 행

원 용 택

<대한사료 기획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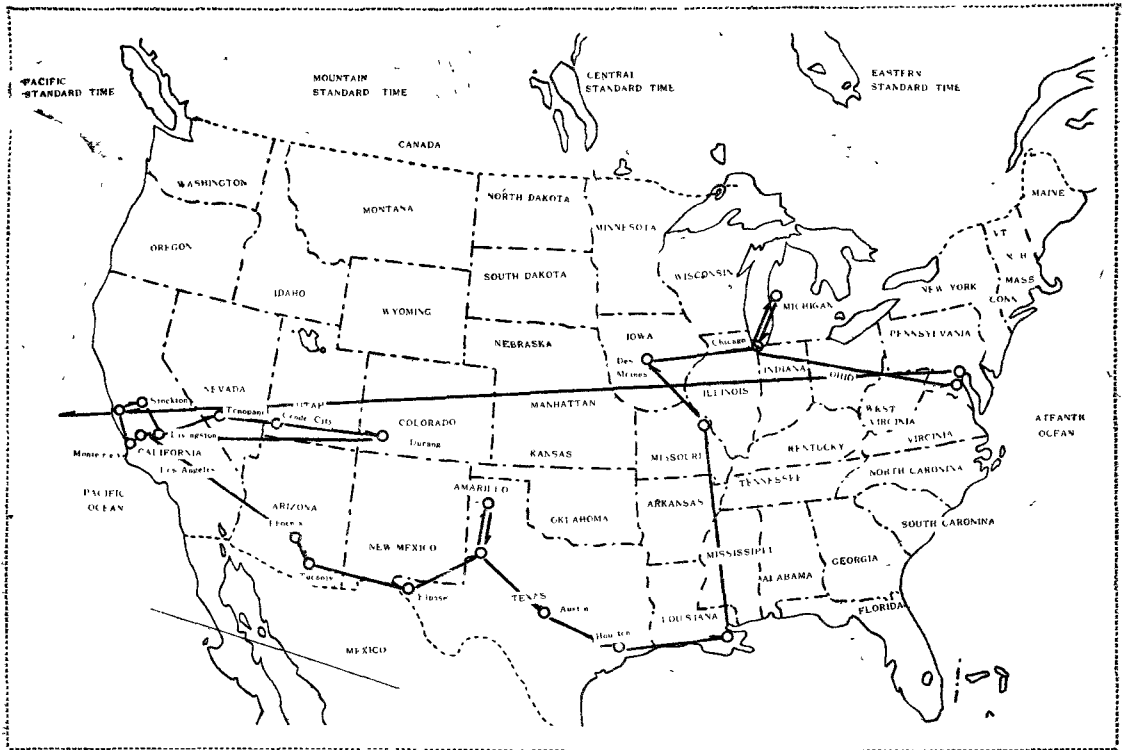
산뜻이 구획 정리된 경지(耕地)

2.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활한 미국의 땅”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원과 포부가 있다. 끝없이 넓은 평원을 소유하고 여기에 푸른 목초지를 조성하여 살찐 소를 방목하며 말을 타고 소를 돌보며 푸른 하늘과 대자연 속에 파묻치는 목가적인 생활일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요즈음처럼 기계문명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더욱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이다. 모든 축산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곳이 바로 여기에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미국은 참으로 넓고도 넓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와싱턴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동안 땅의 변화를 보면 푸르고 검푸른 산악이 있고 나무하나 풀 한포기

없는 사막지방도 있다. 산이 전혀 없는 넓은 들이 있는가 하면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와 강이 있고 기분 나쁜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미국의 국토는 천연적인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앞에 열거한 그러한 변화와 기후의 변동이 심한 것을 과학적인 개발과 개척으로서 지금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조그만 땅에서 불만속에 생활하던 나그네인 나는 이땅에 대한 부러움과 소유하고 싶은 영웅한 생각도 들었으나 온화한 기후와 개척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 우리나라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앞섰다.

미국이란 곳을 좀 자세히 관찰하면 미국의 부강은 넓고 큰 땅이 아니라 근면하고도 부지런하며 능동적인 미국인의 정신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적인 조건과 인공적인 여건을 합하여 이상적인 낙원을 형성하였다는 그 사실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지 얼마안된 기간을 오로지 피와 땀을 흘려 개척하여 오늘날의 낙원과 번영을 찾은 것이다. 이들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로서 그 후손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이 나라에서 부(富)와 귀(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미국을 활기있고 부강하게 한 또 하나의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또 의무를 스스로 행할 줄 아는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함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미국의 힘의 상징은 길, 즉 도로라고 느꼈다. 산악지대도 사막도 하천도 농토도 모두 쪽쪽 뻗은 곧은 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미줄같이 엉켜 있는 이 길은 그들의 힘찬 맥박이요 또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할때 우리나라도 큰 공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로를 잘 닦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나그네는 절실히 느꼈다. 도로가 발달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하여 산간이나 도시와의 소통이 잘 되어 생산산업구조도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벽지에서 외로운 고독감이 없어져 도시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그네는 농학도이니만큼 우선 농토의 활용을 중심으로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려고 한다. 아이오와(Iowa)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은 옥수수과 콩을 주산으로 한 농업이 발달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축은 돼지와 비육우가 발달되어 있고, 텍사스(Texas)주를 중심으로한 남부는 면화와 수수의 산지로서 비육우 사육이 성행하고 있고, 몬타나(Montana) 다코타(Dakota)를 중심으로한 서북부는 밀의 주산지로서, 위스콘신(Wisconsin)주는 낙농업이 발달하여 있다. 산란계의 사육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조지아(Georgia) 주가 많으며, 아칸사스(Arkansas)주는 부로일러가 성행하며, 미네소타(Minnesota)주는 칠면조가 발달되어 있다. 그 지방의 자연의 특색과 혜택을 잘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미국땅은 우선 토지구획

이 최고도로 잘 정지되어 있다. 마치 바둑판과 같이 네모꼴로 되어 있어 기계로 경작하기에도 편리하며 검붉은 암갈색과 짙은 녹색의 조화는 풍성하고 비옥한 느낌이었다. 작물재배도 때로는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식재하여 마치 중세기 궁전의 화려한 정원 풍경을 연상하게 하였다. 관개시설과 전기 또한 수도시설의 완벽은 미국의 농촌을 살찌게한 근본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감잡한 밤에도 찬란하고도 영롱하게 빛나는 불빛 곁은 도로를 잇달아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 모두가 부강한 미국의 약동하는 숨결같은 느낌이었다.

3. “미국의 농촌풍경”

(1) 카우보이의 고향 텍사스

텍사스(Texas)라하면 우선 우리들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당한 곳이라는 무시무시한 선입관이 있었으나 미국의 역사상 가장 그 기개가 높고 투쟁적이며 개척정신이 투철한 곳이 바로 이 텍사스주라고 텍사스 주민들은 자랑을 한다. 1836년 187명의 미국인이 멕시코의 압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궤기했다가 멕시코인에게 전원 전사한 아라도 요새가 있고 사무엘 휴스턴이 멕시코 장군 산타아나를 생포하여 독립을 달성한 다음, 1845년 합중국에 합병되었고 1870년까지 인디안과 투쟁하여 개척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무척 보수적이고 투쟁적인 사람들이라 끝없이 넓은 이 황무지를 텍사스인은 포장마차에 몸을 담고 소떼를 몰고 개척한 역사는 불과 150년밖에 안되었으나 지금은 가장 부유한 주의 하나로 손꼽히며 일하는것을 좋아한다고 우리를 안내한 하아프(HARP)씨의 이야기였다. 하아프씨는 텍사스 수수목물협회 지부장으로 자기 할아버지의 의사이며 동부에서 이주해와 자기까지 3대째 루빅(Lubbock)에서 정착한 부유한 가정출신이며 이곳의 유지였다. 하아프씨의 텍사스 농업사를 소개하면 1870년까지 인디안과 투쟁하며 시작한 농업은 우선 목초부터 시작하여 광활한 평원을 물과 초지를 따라 말을 타고 다니며 유목(遊牧)하였다 한다. 연간 강우량이 500mm이하인지라 메마르고 건조한 땅으로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이

지방특유의 가시나무(탱자나무 비슷함)의 일종이 무성하게 자라있었던 곳을 이것을 제거하고 관개시설을 하여 박토를 옥토로 개간하였다 한다. 관개용물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참으로 그 노력에는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이 지역의 표고는 1,000m의 고원지대로서 지하수는 1,000m밑에 있어서 이것을 펌프로 끌어올려 스프링쿨러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나는 이곳을 본 순간 우리나라의 하늘이 내리신 조건에만 의지하여 강우량에만 매달리어 농사를 짓는 즉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줄 모르고 자연의 힘에 무력한 우리들의 생활과 사고에 어떤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고 느꼈다.

우리가 생각할때 도저히 불가능한것 같은 사실을 눈으로 볼때 영농도 과학적으로 행하며 이 사람들의 물에 대한 개발과 과학적인 이용방법 연구도 대단하였다. 이 지하수 개발사업도 국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가 용자를 얻어 추진하였다 한다.

이 지하수도 앞으로 30년 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북부의 텍키산맥에서 운하를 시설하여 물을 끌어 들이려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연방정부와 타협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행하며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사고로서 개척하여 자기 자신의 발전은 물론 미국의 번영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단, 전기와 도로 및 상수도는 국가에서 시설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이 지방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약 500에이커(약 62만평)정도라 하며 1년 단작을 하고 있었다. 이곳 농산물의 주산은 수수 면화 대두로서 생산량은 전 미국생산량중 수수가 30% 면화는 12%라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80%가 수출20%가 자국소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가장 흥미있게 본 것은 비육우 사양관리이다. 텍사스주에는 비육우가 약 1,500만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자동차로 교외에 조금만 나가면 여기 저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 비육우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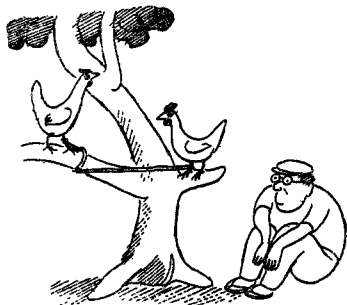
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들도 소에 취하

여 멍하여 질 지경이다.

그러나 목장안에서 본 대단위 사육과정은 새삼스러이 놀라게 하며 흥미를 갖게한다. 특히 밀집사육 방법을 채택한 이들의 규모는 미국아니면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또한 상상도 못하리라. 이 지방의 이 방법을 시작한 것은 랄스톤 퓨리나(Ralston Purina)회사라고 한다.

1958년 100두부터 시작한 이 휘드로트(Feed lot)는 지금 현재 10만평 대지에 45,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파리메가 새까맣게 몰려 있는 것 같았다. 사료는 자가생산하여 급여하고 있었다. 이 지방에 이러한 방법으로 5,000두 이상 사육하는 곳이 80여개소나 있으며 한곳에서 81,000두를 사육하는곳이 제일 크다고 한다. 그 규모를 우리가 사육하는 닭의 수수(首數)와 비교하여 상상하여 보시라! 그러나 이렇게 풍요한 이들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다. 미국의 국민 소득이 연간 4,500불인데 비하여 이농민들은 4,000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고로 해마다 노동력이 줄어 이러한 현상은 농촌을 더욱 부강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걱정을 하는것을 보았다.

한 예로 농사철에만 농토에 돌아와서 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도회에 나가 판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



양계 경영일지를 씌시다



국내및 해외에서
각광 받는
병아리 감별사

연구생 모집

◎해외 이민, 유학,
파견, 취업등 해외
진출및 국내감별사
직을 원하는분

◎최신의 시설과훌륭
한 강사진으로
단기 특수기출을
책임지도 함

연락처 75 9911

관인
해외병아리감별기술편역원

